광주 미혼 남녀의 사랑만들기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빛고을 미혼 남녀 사랑만들기'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아이낳기 좋은세상 광주운동본부가 주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또 '반짝추위'

오늘 밤부터 3일까지 … 강풍불어 체감온도 '뚝'

1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3일까지는 '반짝 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밤부터 북서쪽의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전날보다 4도~5도 가량 내려가겠다"고 지난달 31일 예보했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1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19도가 예상된다. 아침 복사냉각으로 산간지방과 일부 내륙지방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으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도 뚝 떨어질 전망이다.

반짝 추위는 3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포근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예방에 주의해야 하며, 내륙 일부지방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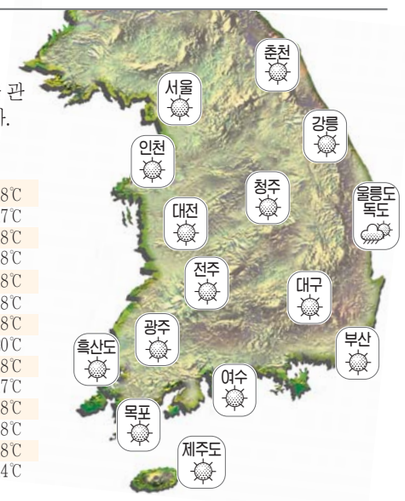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6시 53분 해짐 17시 39분 달뜸 01시 01분 달짐 14시 16분

푸석한 가을 피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하자.



광 주	맑음	7/18℃
목 포	맑음	8/17℃
여 수	맑음	11/18℃
완 도	맑음	8/18℃
구 례	맑음	4/18℃
해 남	맑음	5/18℃
장 흥	맑음	5/18℃
고 흥	맑음	6/20℃
순 천	맑음	7/18℃
영 광	맑음	5/17℃
진 도	맑음	7/18℃
전 주	맑음	5/18℃
남 원	맑음	3/18℃
흑산도	맑음	12/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09:16 21:57	02:34 14:47
여수	04:44 17:10	10:38 23:2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날 씨						
최저/최고	7/13	5/15	4/17	7/18	7/19	8/19

제주도 뱃길은 노다지?

장흥 이어 해남·광양·고흥 잇따라 항로 추진 … 시·군 갈등도

해남·광양·고흥 등 전남 남해안 지역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제주노선 취항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취항한 장흥 노력항~제주 성산포항 쾌속선은 1척당 하루 2000명의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면서 '황금 노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해남군과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씨월드고속훼리가 해남 우수영~제주 항로 개설 허가를 받았으며, 광양지역 선사인 한라고속훼리는 광양항~제주도를 잇는 신규 노선 취항을, 오렌지호 취항을 장흥에 뺏긴 고흥도 녹동항~제주 쾌속선 운항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씨월드 고속훼리는 신규 제주 항로 개척을 위해 이미 선체 길이 80m에 800명의 인원과 차량 160대를 실을 수 있는 카페리 선박을 확보해 내년 7월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로가 개설되면 해남 우수영에서 매일 오전 8시 출항할 예정이며 2시간 10분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다른 여객선 업체는 해남 땅끝에서 여객만 싣고 떠나는 쾌속선 취항을 해남군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제주 취항에 열을 올리는 것은 부가사업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장흥군은 지난 9월 추석 기간 노력항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 관광객을 대상으로 쏠쏠한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 관계자는 "제주와 우수영을 잇는 노선이 취항하면 관광객의 비용 절감과 함께 우수영 인근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며 "관광객 대상의 농수산특산물 판매와 물류여객시스템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제주 뱃길 개척'에 열을 올리면서 연안 양식 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등 일부 반발도 일고 있다. 또 노선 추가로 인해 관광객의 숫자가 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관광객 분산으로 인해 경제 효과도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추측이다.

제주 취항을 준비중인 한 선사 관계자는 "신규 노선의 성공은 관광객 접근성 여부에 달려있다"며 "접근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척된 노선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남 지역에서 제주도와 뱃길로 이어진 노선이 있는 지자체는 목포와 완도, 장흥 3곳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유아스포츠단 해체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1992년부터 운영해 온 유아스포츠단을 해체하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31일 "유아스포츠단의 원아가 줄면서 매년 1억원씩 적자가 나 구조조정 일환으로 내년부터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에 졸업하는 현재 7세반 15명과 5~6세반 35명이 매달 25만원씩 내고 유아스포츠단을 다니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아스포츠단은 일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달리 정부 지원이 없어 원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도시공사가 원아모집에 대한 노력도 없이 해체를 서두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이가 일반 유치원 교육과 함께 빙상, 수영, 태권도 등도 배울 수 있어 좋았는데 갑자기 해체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유아스포츠단 해체 뒤 염주실내체육관 내 수영장과 빙상장에서 별도의 유아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진학·진로지도 강화"

장휘국 시교육감 당선자, 학습·진단 관리 시스템 구축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진학지도와 진로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줄이기 위한 학습·진단 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지난달 31일 "학생들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대학 학과 선택과 직업 진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초·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진로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달 진학정보신문 발간, 신규 담임교사용 진학지도서 제작 보급, 진로상담 전문 교사단 구축, 선배들의 입시경험사례 제공, 학교 진로상담실, 학교 홈페이지 진로 상담방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적성·인성검사, 진로심리검사 통한 지원, 현재 진학정보센터를 학생생활종합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장 당선인은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 제로화'를 위해 ▲학습보조 인턴 및 돌봄교사 초등학교 집중 배치 ▲이러닝 학습 콘텐츠 개발 보급 ▲기초학력 예방, 진단, 관리 시스템 구축 ▲심리학습 클리닉 운영 ▲방과후, 방학중 특별보충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평생 '내화물' 한우물 판 기업인

〈耐火物〉

■ 타계 이훈동 회장의 삶

이훈동 명예회장이 지난 2004년 문을 연 성옥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성옥(聲玉) 이훈동 조선내화 명예회장(전남일보 명예회장)은 평생을 '내화물'(높은 온도에도 견디는 비금속 재료)이라는 한우물을 판 기업인으로, 연간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조선내화를 국내 내화물 업계 정상으로 이끌었다.

고인은 일제 강점기인 1932년 해남 성산의 쇼와(昭和)광업소의 견습사원으로 채용돼 3년 만에 광업소 지배인이 됐다. 1945년 광복을 맞으면서 광업소가 문을 닫자 고인은 고향인 해남에서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농사꾼이 싫어 독일로 떠났고, 그 곳에서 내화물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귀국 후 37세의 나이로 조선내화 화학공업주식회사를 인수했다. 당시 고인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공장을 30여명의 사원과 1년 넘게 복구하며, 손마디마다 피멍이 들 정도로 애정을 쏟았다.

1973년 포항제철의 탄생은 조선내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제철소에 필요한 다양한 내화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기술력이 축적됐다.

고인이 일군 기업은 19개에 이른다. 조선내화를 비롯해 완도광산·성산광산 등 4개 광산과 성옥산업(주), (주)대주기공, (주)대한세라믹스, (주)한국분체, (주)대한소결금속, (주)삼한, (주)전남일보, (주)클럽900 골프장 등 국내 15개 기업이 있다.

고인은 1964년부터 1985년까지 21년동안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다. 전국 최장수 기록이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부의장, 대한광업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77년 회갑을 계기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사재를 털어 성옥문화재단을 설립, 학생 4000여명에게 3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